https://doi.org/10.5392/JKCA.2017.17.04.331

북한 영어 교과서 어휘의 통시적 분석

A Diachronic Lexical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English Textbooks

김지영*, 이제영**, 김정렬***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세한대학교 영어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Jiyoung Kim(xerasia@hanmail.net)*, Je-Young Lee(zepp94@sehan.ac.kr)**,
Jeong-ryeol Kim(jrkim@knue.ac.kr)***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의 시대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통시적인 관점에서 코퍼스 기반 어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의 중등학교 영어 교과서 중 1996년 교육과정이 적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김정일 시대 이전과 이후의 교과서를 구분지어 코퍼스를 구축한 후, 워드스미스 툴스 7.0을 통해 해당 코퍼스를 분석하여 각 교과서들의 어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해당 교과서들의 어휘 규모는 개편 후의 교과서가 개편 전에 비해 증가했지만, 어휘 유형과 어휘 다양성은 감소하였다. 교육과정 개편 이전에 비해 개편 이후의 교과서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 핵심어(keyword)를 분석한 결과 김정일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관련 이념 어휘와 북한의 경제 및 생활상을 반영하는 어휘들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빈도 어휘 100개 목록과 핵심어를 비교한 결과 북한의 영어 교과서의 어휘가 문법과 문어체 위주의 텍스트에서 조금씩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구어체 내용이 증가하고 있었다.

■ 중심어 : | 북한 영어 교과서 | 어휘 분석 | 코퍼스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English vocabulary of the North Korean textbooks diachronically using the constructed English textbook corpus. The North Korea English textbooks attained from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re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Kim Jong-Il era for the year of 1996 in which the curriculum revision has been conducted. They are stored as text files to analyse vocabularies using WordSmith Tools 7.0. The vocabulary size of the revised textbooks increased after the curriculum reorganization, but the number of vocabulary types and vocabulary diversity decreased. After the curriculum revision, it was found that lots of vocabular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im Jong-Il system appeared as the keyword. It was also found that some vocabularies reflected the economic and social life of North Korea.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of the 100 high-frequency word list and keyword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vocabulary of the English textbooks of North Korea is gradually changing into communicative contents from contents related with written language.

■ keyword : | North Korea English Textbook | Vocabulary Analysis | Corpus |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서 (NRF-2016S1A5A2A01022211) 제1저자의 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확장하였음

접수일자 : 2017년 01월 03일
수정일자 : 2017년 02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2월 05일
교신저자 : 김정렬, e-mail : jrkim@knue.ac.kr

I. 북한의 영어교육과 교과서

교과서에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교육 이념, 시대적인 정신, 그리고 해당 교과목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국가의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와 취지가 교과서에 제대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1]. 특히 북한처럼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국가 전반을 지배하고 있을 경우, 관련 이념이 지향하는 목표가 곧 학교교육의 내용이 되고, 교과서는 그 가치와 정책을 반영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북한 교과서는 북한의 학습자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지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북한의 교육 정책과 그 이면의 사회적 문화 수준을 고찰하기 위한 주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2012년 새로 개편된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 고급중학교의 교과목 수업시간을 살펴보면, 국어(215시간)보다 영어(243시간)의 수업 시수가 더 많다[3]. 김정은 시대의 교육체제, 교육과정, 교과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4], 영어 과목은 북한에서 그 동안 가장 많이 강조하여 다뤄졌던 사상교육 교과목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그 위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 폐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 학교 교육을 통해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 영어 교과서의 어휘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 양상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1996년 교육과정 개편을 기준으로 김일성 집권기와 김정일 집권기에 사용된 각각의 북한 영어 교과서 어휘를 비교 분석하여 북한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어떤 어휘를 학습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따른 북한의 영어 교과서의 어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의 영어 교육

북한에서는 1958년부터 외국어 교육이 시작되어, 최근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영어, 중국어 등의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영어가 국제어로 통용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김정일의 교육 원칙에서 나온 것으로, 김정일은 외화벌이를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영어를 알아야 한다며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5]. 이에 따라 1995년에 이르러서는 북한의 외국어 교육에서 러시아어가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여 영어를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기존에 영어가 정규 과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08년 9월부터 소학교에서도 영어 과목의 수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최근 북한에서 영어 교육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6].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조정아(2014)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중등학교의 영어교육에 EU(European Union) 지역의 교수 인력을 초빙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3]. 북한의 이러한 교육 방침은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정치・경제면에서의 여러 현실적 제약에 가로막혀 있어 실질적으로 북한의 영어 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로 북한의 영어 교과서 구성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체계적・내용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이 과거의 외국어 교육에 있어 영어가 아닌 러시아어를 강조한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높은 정치적・사회적 의존에 더하여 영어를 미 제국주의의 잔재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원수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겨루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영어 교육을 계속해 왔으며, 이는 영어를 공산주의 이념을 함양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영어 교육 목적은 영어 교과서의 내용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박약우, 박기화, 김진철, 고경석, 정국진(2001)은 북한의 교과서가 “국가가 규정하는 공식적인 교육내용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7]. 국정 교과서 외에도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에서는 전 과목 국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롯한

공식적인 교육 내용을 전달하여 3대 세습 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학교 교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1년 북한의 고등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의 머리말에는 '학생들은 다른 나라 말도 조선혁명을 위하여 배운다'는 문구가 있으며[8], 모든 영어 교과서의 머리말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독제 세습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교과서를 구성하는 어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2년 9월, 북한은 기존의 11년이었던 의무교육제를 12년으로 변경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편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변화 방향을 연구한 김정원, 김지수, 한승대(2015)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현 북한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3대 세습의 지도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 전체에서 지도자 관련 과목 및 수업시수가 강화되었다[9]. 영어 교육과 관련한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정치적 목적 외에 실용적 목적이 반영되었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포착된다. 영어 교과의 수업 시수가 확대되었고, 기존의 '외국어'라는 포괄적인 교과목명 대신에 '영어'라는 특화된 교과를 지정하였다. 남한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 단계에서는 국어보다 영어의 수업 시간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통해 북한에서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영어가 필수 과목이 되었으며, 북한 사회가 과거의 이념을 중시하던 풍조에서 나아가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편 이후의 북한 영어 교과서 자료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확보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영어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한 연구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교과서를 한 번에 바꾸어 보급하는 것이 어려우며, 시차를 두고 학년별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10]. 그러므로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는 아직도 2012년 교육과정 개편 이전의 교과서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2012년 이전의 북한 영어 교과서라 하더라도 해당 어휘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나름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의 영어 교과서의 어휘 변화 모습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 북한 영어 교과서 관련 선행 연구

제한된 자료의 양과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점차적인 증가와 북한의 영어 교과서 관련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북한의 영어 교육 및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북한의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시대적 배경과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그 연구 대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크게 북한의 영어 교과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과 남북한 영어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영어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 중에서 어휘와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박민제(1993)에 의하면, 당시 통일원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6학년용 영어교과서가 입수되었고[11], 이를 필두로 북한의 영어 교과서에 관한 연구가 김남식(1995)에 의해 시작되었다[12]. 어휘 학습과 관련하여 김남식(1995)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6학년 교과서에서 각 단원에 속한 'New Words and Word-Combinations'란이 해당 단원의 어휘와 뜻을 제시하고 있어 학습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단어장 수준에 불과하여 학습자의 심도 있는 어휘 학습을 하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의 영어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소영(2014)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영어 교과서와 관련된 20편의 선행 연구를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는데[13], 이 중 북한의 교과서를 주로 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것에는 유명근(2008), 정소영(2009), 이나리(2011)의 연구가 있다[14-16].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어휘적인 측면과 관련지으면, 유명근(2008)은 연구 시점의 북한의 전 학년 영어 교과서의 지문을 서구문화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관련 지문을 가난, 인종차별, 미 제국주의, 부정적 일상생활, 교훈적 일화 등의 5가지 소재로 분류하였다. 또한 부분적으로

정량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지문의 단어 수를 분석하고 각 소재에 포함되는 어휘를 열거하여 북한 영어 교과서에서 나타난 어휘의 특징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였다[14]. 정소영(2010)은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사용된 중학교 1, 2학년 교과서를 시대별 흐름에 따라 분석하여 북한 영어 교과서가 문법 중심에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영국식 어휘에서 미국식 어휘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북한 사회가 점차 개방될수록 영어교육에 있어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15]. 이나리(2011)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3~5학년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이들 교과서에는 주로 주체사상, 자연과학 및 부정적인 시각의 외국 문화 관련 소재의 지문이 많이 등장함을 지적하였다[16].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북한의 영어 교과서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어휘의 특징들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어휘들이 많이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영어 교과서는 그들의 정치,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정아, 이교덕, 강호제, 정채관(2015)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연구하여 선행 연구 가운데 가장 최근의 내용을 담고 있다[4]. 이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중등 영어과 교육과정은 특정 위계나 계열성이 아닌, 소재를 바탕으로 한 주제 중심 교육과정으로, 언어지식과 기능 면에서 단계별로 학습량이 증가하며, 어휘의 경우 학년・학교급에 따라 어휘의 난이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교과서 본문에 새로 제시되는 단어를 배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어휘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영어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선행 연구들에서 어휘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공통점을 살펴보면, 북한의 교과서가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비해 신출 어휘의 수가 대체적으로 적고, 북한의 체제와 관련된 어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영어 교과서를 주로 외형 및 내용적인 면에서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어휘와 관련하여 정량적인 방법이 아닌 정성적인 방법으로 연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코퍼스 기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 영어 교과서의 어휘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도 있다. NLPTools를 사용하여 북한의 중학교 4~6학년 교과서 어휘를 코퍼스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임지영(2011)은 이를 원어민 코퍼스인 BNC(British National Corpus)와 비교하여 상위 100위 안에 73%가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17]. 그러나 해당 북한 영어 교과서 코퍼스는 읽기 지문에만 제한되어 있어 교과서 전반에 나타나는 어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특정한 시기의 교과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어휘의 변화 및 학년에 따른 어휘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통시적 접근의 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영어 교육이 사회 체제를 옹호하고 우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달리, 배제이(2015)는 2000년대 이후에 북한 영어교육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 과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파악하고, 현재의 북한 영어교육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영어교육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주장한 바 있다. 그 근거로 2013년에 발행되어 현재 사용 중인 북한 영어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 언어 활용 관련 연습 문제, 의사소통 교실 활동 및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등을 제시하였다[18]. 따라서 북한의 달라진 영어교육 및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코퍼스언어학 기반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 영어 교과서에서 실제 사용된 어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영어 교과서를 코퍼스 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북한의 변화하는 영어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의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6년 북한의 개편 전・후의 영어 교과서의

어휘 규모와 어휘 다양성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둘째, 같은 시기 북한의 영어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다빈도 어휘와 핵심어의 양상은 어떠한가?

II. 북한 영어 교과서 어휘 연구

1. 연구 대상

북한은 김정일 시대인 1996년에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개편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이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교육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집 가능한 교육과정 개편 전과 후의 동일 학년 북한 영어 교과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8][19-23].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구분	학교급	학년	출판 연도
1996년 교육과정 개편 이전	고등 중학교	2	1996(8판)
		3	1994(6판)
		6	1995(미상)
1996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고등 중학교	2	2001(2판)
		3	2002(2판)
	중학교	6	2008(4판)

[표 1]에서 연구 대상 교과서가 2, 3, 6학년에 한정된 이유는 1996년 교육과정 개편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 학년에서 비교 가능한 교과서가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학년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8년에 출판된 6학년 교과서만 학교급이 '중학교'로 표기된 이유는 해당 교과서만 2002년 교육제도 개편 후에 출판된 것에서 기인하며, 북한에서는 당시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기존의 '고등중학교' 명칭을 '중학교'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학교 명칭은 달라졌지만, 사용된 교과서는 동일한 것이 확인되었기에 해당 교과서를 본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동일 학년이지만 서로 다른 교육과정에 의해 출판된 북한의 중학교 2, 3, 6학년 교과서는 각각 5년과 8년, 7년의 차이를 두고 출판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서지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는, 각 교과서가 초판으로 출판된 첫 해로 계산한다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 두 그룹의 교과서 어휘 분석이 90년대와 2000년대 북한 영어 교과서의 시대별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교과서의 모든 텍스트를 코퍼스로 구축한 후에, 코퍼스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어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워드스미스 툴스(WordSmith Tools) 7.0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영어 교과서 분석에 따른 코퍼스 자료 구축을 위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북한 영어 교과서 내의 모든 영어로 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텍스트 파일(.txt)로 저장하였다.

(2) 워드스미스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휘 원형 리스트(lemma list)를 다운받아 분석대상 코퍼스 어휘를 원형(lemma) 작업하여 대표 어휘형으로 수정하였다.

(3) 워드스미스의 워드리스트(WordList) 기능을 활용하여 북한 영어 교과서의 어휘 규모, 어휘 출현형(token), 어휘 유형(type), 어휘 다양성(TTR, Type/Token Ratio), STTR(Standardized TTR), 빈도(frequency), 문장 평균 길이(Mean in sentence length)와 같은 코퍼스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전반적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4) 워드스미스의 워드리스트 기능을 사용하여 북한 영어 교과서의 어휘 목록을 추출하였다.

(5) 워드스미스의 키워드(KeyWord) 기능을 사용하여 동일 학년, 시대별 다빈도 어휘 및 핵심어성(keyness) 분석을 통해 북한 영어 교과서의 통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코퍼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도구는 워드스미스 툴스(WordSmith Tools) 7.0프로그램이다. 워드스미스 툴스 7.0은 검색어를 키윅(KWIC, KewWord In Context) 방식으로 제시하는 콘코던스(concordance) 프로그램 중 한 가지로, 검색하고

자 하는 어휘의 빈도수뿐만 아니라 검색어와 관련된 연어를 찾아주는 등의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워드스미스 프로그램은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구축해야 하므로, 연구 대상 중에서 북한 영어 교과서의 텍스트를 코퍼스 자료로 직접 구축하였다. 워드스미스에는 크게 워드리스트(WordList), 키워드(KeyWord), 콘코드(Concord)의 세 가지 기능의 메뉴가 있으며, 북한 영어 교과서의 어휘 관련 기초 데이터, 어휘 목록 추출, 핵심어 분석에 이 기능들을 활용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교육과정 개편 전·후 어휘 규모와 다양성

북한의 교육과정 개편 이전/이후에 사용된 학년별 교과서 각각의 어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어휘의 출현형과 어휘 유형의 수치를 통하여 어휘 규모를 확인하였다. 어휘의 출현형(token)은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어를 의미하며, 어휘의 유형(type)은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 중, 중복을 제외하고 나타나는 어휘의 종류를 나타낸다[24]. 북한의 중학교 2, 3, 6학년 영어 교과서의 어휘 규모와 어휘 다양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교과서의 1996년 교육과정 개편 이전과 이후의 어휘 정보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교육과정 개편 전·후 어휘 규모

구분	어휘 규모 (Token)		어휘 유형 (Type)	
	이전	이후	이전	이후
2학년	17,865	22,344	937	990
3학년	13,581	15,899	1,259	1,215
6학년	19,943	17,539	2,188	2,051
전체	51,399	55,782	2,937	2,797

[표 2]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편 전에는 6학년의 어휘 출현형이 19,943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17,875개인 2학년, 그리고 3학년의 어휘 출현형이 13,581개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편 후에는 2학년의 어휘 출현형이 22,344개로 가장 많고, 6학년은 19,943개, 3학년은 15,899개의 어휘 출현형을 나타났다. 연구 대상 학년이 3개 학년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보통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문이 길어지고 제시되는 어휘의 개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북한의 영어 교과서에서는 학년 별 어휘 출현형에 뚜렷한 위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어휘 유형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개편 전·후에 학년별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6학년의 어휘 유형이 제일 많고, 2학년의 어휘 유형의 수가 가장 적어서 학년별 위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수치인 어휘 다양성(TTR, Type/Token Ratio)과 표준화된 어휘 다양성(STTR, Standardized TTR) 값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교육과정 개편 전·후 어휘 다양성

구분	어휘 다양성 (TTR)		표준화된 어휘 다양성(STTR)	
	이전	이후	이전	이후
2학년	5.24	4.43	15.77	15.15
3학년	9.27	7.64	26.81	22.10
6학년	10.97	11.69	22.63	23.26
전체	5.71	5.01	20.49	18.10

교육과정 개편 이전/이후의 북한 영어 교과서의 어휘 규모는 거의 비슷하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어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STTR 수치를 확인한 결과, 교육과정 개편 이전에는 3학년의 STTR이 26.81로 가장 크고, 6학년과 2학년의 순서로 수치가 높았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편 이전에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어휘가 가장 다양하게 쓰이고, 같은 어휘의 반복이 적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편 이후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STTR 수치가 15.15에서 22.10, 그리고 23.26으로 늘어났으며, 따라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고 반복적인 어휘 등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와 [표 3]에서 '전체' 값은 중학교 2, 3, 6학년의 코퍼스 텍스트를 각각 교육과정 개편 전과 후로 집약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교육과정 개편 전의 2, 3, 6학년 영어 교과서 전체 어휘 출현형은 51,399개이

지만, 개편 후에는 55,782개로 늘어났으며, 어휘 유형은 2,937개에서 2,797개로 줄어들었다. STTR 수치는 개편 전 20.49이던 것이 18.10으로 값이 낮아져, 북한의 영어 교과서는 1996년 이전에 출간된 것보다 교육과정 개편 이후부터 2008년까지 출판된 교과서가 어휘의 다양성의 폭이 줄어드는 대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많아져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을 보다 수월하게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다빈도 어휘와 핵심어 분석

교육과정 개편 전과 후의 중학교 2, 3, 6학년 영어 교과서 전체의 다빈도 어휘 100개를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 개편 이후의 다빈도 어휘 목록에서 'it's', 'can't', 'isn't', 'what's', 'don't' 등의 축약형이 이전에 비해 빈도 순위가 높아졌거나 새롭게 다빈도 목록에 등장했다. 교육과정 개편 이전에는 이와 같은 축약형이 'it's'와 'isn't'밖에 없었지만, 개편 이후의 다빈도 어휘 목록에서는 'can't', 'what's', 'don't'가 새로 등장하였고, 기존의 어휘 목록에 있었던 'it's'와 'isn't'의 빈도 순서도 각각 74위에서 31위, 85위에서 76위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의 교육과정 개편 이후의 영어 교과서가 과거에 비해 문어체에서 구어체 텍스트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빈도 어휘 100개의 단어 중 기능어와 내용어의 비율을 각각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편 전에는 기능어가 63%이고 내용어가 37%였던 것이, 개편 이후에는 기능어 69%와 내용어 31%의 비율로 변화하였다. Cameron(2001)에 의하면, 기능어는 내용어에 비해 집단은 작지만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기억하고 이해하기가 용이해 일정 텍스트 내에 기능어의 비율이 높을수록 텍스트의 난이도는 낮아진다[25]. 반대로 내용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능어의 비율보다 높을수록 학습자가 처리해야 할 내용어가 많아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텍스트라 할 수 있다[26]. 따라서 상대적으로 내용어가 다빈도 어휘 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교육과정 개편 이후의 영어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쉽게 학습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학년과 교육과정에 따라 다빈도 어휘 100개에서의 기능어와 내용어의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다빈도 어휘 100 기능어·내용어 비율(%)

구분	기능어		내용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2학년	50	49	50	51
3학년	51	55	49	45
6학년	65	61	35	39
전체	63	69	37	31

[표 4]에서 북한의 영어 교과서는 2학년에서 3학년, 6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편 전과 후 모두 기능어의 비율이 늘어나고 내용어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영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텍스트에서 영어 구조의 필수적인 요소인 기능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영어 교과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빈도 어휘의 난이도는 쉬워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학년의 교과서를 다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대상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개편 이후 2, 3, 6학년의 교과서 전체 코퍼스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정 개편 전의 동일 학년 교과서를 참조로 추출한 핵심어휘는 다음과 같다.

표 5. 교육과정 개편 이후의 핵심어휘

핵심어휘	대상 코퍼스 빈도 (개편 이후)	참조 코퍼스 빈도 (개편 이전)	*p*
apartment	30	1	0.000
★leader	70	17	0.000
★Juche	63	14	0.000
★marshal	44	6	0.000
sheep	63	15	0.000
student	78	23	0.000
bike	29	2	0.000
everyday	34	4	0.000
★Jongll	41	7	0.000
certainly	23	1	0.000
goat	27	3	0.000
Pyongyang	37	7	0.000
pig	28	4	0.000
sure	59	19	0.000
solve	25	3	0.000
store	18	1	0.000
excuse	18	1	0.000
sir	17	1	0.000
picture	44	13	0.000
problem	34	8	0.000
sorry	19	2	0.000
fat	23	5	0.000

★이념 어휘

북한의 중학교 2, 3, 6학년 영어 교과서를 통틀어서 교육과정 개편 전과 후의 각 어휘목록을 비교한 결과, 'leader', 'Juche', 'marshal', 'JongIl' 등의 김정일과 관련된 어휘들이 핵심어로 검색되었다. 또한 북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어휘인 'apartment', 'bike', 'store'의 빈도수가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교과서에서 유난히 빈도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북한에, 혹은 적어도 평양에는 아파트 형태의 주거문화가 새로 등장했거나 계속해서 정착하고 있는 과정이 교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드스미스 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partment'의 용례를 검색한 결과, 실제로 북한의 2008년 중학교 교과서에 "In Pyongyang there has been many apartment houses newly built." 나 "There is a river from which we can see apartment houses which has been newly built."와 같은 문장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 개편 전에는 빈도수가 2에 불과했던 'bike'는 개편 후 29로 상승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시기에 북한에 자전거가 주요 이동 수단이 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상징 중 하나인 'store'라는 어휘가 교과서에 나타나고, 그 빈도수가 1에서 18로 증가했다는 것은 북한에서도 시장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어휘와 관련하여 영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certainly', 'sure', 'excuse', 'sorry' 등과 같은 어휘들의 빈도수가 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어휘들을 콘코던스 기능으로 용례 검색을 하면 주로 "Certainly!", "Sure!", "Excuse me.", "Sorry, but ..." 처럼 주로 담화표지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교과서들의 다빈도 어휘 목록에서 회화형에 더 많이 쓰이는 축약형 어휘들이 상당 부분 사용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북한의 영어 교과서가 그 변화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읽기, 쓰기 및 문법과 문어체 텍스트 위주의 교육 내용에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구어체 내용을 조금씩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교과서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핵심 어휘에 대한 양상은 김정은 시대에 개편한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새로 발간되어 사용되는 교과서를 구하여 분석하면, 3대째 세습을 이어오고 있는 것과 관련된 이념적 어휘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에 있어서도 가장 최근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핵심 어휘를 발견하고, 영어교육과 관련한 내용 및 어휘의 변화도 파악 가능할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영어가 적대국의 언어라는 과거의 입장과는 달리, 최근의 북한은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교과서의 어휘 변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김정일 시대인 1996년에 진행되었던 교육과정 개편 전과 후의 교과서 어휘의 통시적 분석을 위해 북한의 고등중학교 2, 3, 6학년의 영어 교과서 어휘 목록을 추출하고 시대별로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교육과정이 개편된 이후에 교과서의 어휘 출현형은 늘고, 어휘 유형의 개수는 줄어서 어휘 다양성이 개편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북한의 영어 교과서의 어휘는 개편 이후보다 개편 이전에 더 다양한 유형이 많이 쓰였고, 개편 이후에는 더 적은 개수의 어휘가 보다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개편 전·후의 다빈도 어휘 100개 목록을 분석한 결과, 김정일 우상화 관련 이념 어휘와 회화체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축약형 어휘 및 담화표지어로 쓰이는 어휘의 개수가 늘어나고, 빈도도 높아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영어 교과서가 개편 이후에 혁신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문어체 위주의 구성에서 구어체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배제이(2015)가 지적한 2000년대 김정일의 독자적 정치 행보와 그에 따른 영어교육의 방향 전환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18]. 즉, 이 시기에 종전의 우상화와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이념교육 성격을 유지하되, 동시에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영어교육이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내용이 영어 교과서의

어휘에도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소영(2010)은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의 원인을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과 그로 인해 달라진 외국어 교육의 목적에서 찾았다[15]. 즉, 영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수단으로서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서 중요한 과목이고, 개인적으로도 입신양명을 위해 그 인기와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9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에 출판된 북한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단순한 문법 번역식의 영어 교육에서 탈피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말하기와 대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편찬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어휘 부분에서도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 집권기였던 1990년대에 비해 김정일 시대인 2000년대의 북한 영어 교과서 어휘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영어 교육은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적인 영어 회화 중심의 내용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편 후의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종류는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각 어휘가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교과서 외 다른 교재로 영어 학습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학습자들에게는 더 알맞게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2012년 개편된 학제를 바탕으로 교과서가 새롭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해당 교과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 이전과 2008년 이후의 북한 영어 교과서, 그리고 1, 4, 5학년의 교과서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통시적 어휘 변화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해보자면, 2012년에 새로 개발된 북한의 영어 교과서는 의사소통 및 회화 관련 어휘가 상위 빈도 어휘 목록에 보다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김정일 집권기에 김정일 우상화 관련 어휘들이 교과서의 상위 빈도 어휘에 높은 빈도로 등장한 것과 같이, 김정은의 세습을 굳건히 하기 위한 관련 어휘들도 새 교과서에 다빈도 어휘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의 중학교 6학년을 제외한 2, 3학년의 교과서에서는 김정일과 관련한 어휘 변화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의 교과서에서도 특정 학년을 제외한 다른 학년에서는 김정은 관련 내용어가 핵심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2012년 이후의 북한의 영어 교과서가 우리나라에서 확보된다면 이와 관련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북한의 영어 교과서 어휘는 이념 지향적인 특성이 많고 어휘의 다양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향후 통일을 대비한 영어교육 및 영어 교과서를 준비하는 작업에 있어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념 관련 어휘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영어 학습자들은 우리나라의 학습자들이 배우고 있는 어휘와 상당 부분 다른 어휘를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이념 교육 관련 어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와 문화생활의 차이로 인해서 교과서에 달리 나타나는 어휘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 많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학교 적응에 있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목이 영어이며[15], 실제로 2013년 북한이탈대학생들이 대학교를 중도 이탈한 사유 중 두 번째로 높은 이유가 별도의 영어 교육을 다시 받기 위해서였다[27]. 이는 아직까지는 영어 공교육에 있어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한 어휘교재 및 영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1] 윤현진, 주형미, 문영주, 추병완, 석두영, *국가교육과정개정 체제변화에 따른 교과서 정책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 2010-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2] 권이종, 최운실, 권두승, 이상오, *신 교육사회학 탐구*, 교육과학사, 2004.

[3] 조정아, "섹션 1: 패널 1; 북한의 새로운 세대와 교

육: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1권, pp.72-97, 2014.
[4] 조정아, 이교덕, 강호제, 정채관, *김정은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통일연구원, 2015.
[5] 한만길,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교육, 2001.
[6] 고성호, 권영경, 김정수, 이미경, 정은찬, 차문석, 최은석, 통일부, *(2016) 북한 이해*,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4-10, 통일교육원, 2015.
[7] 박약우, 박기화, 김진철, 고경석, 정국진, *북한 영어 교과서 분석*, 한국문화사, 2001.
[8] 임중관, 박태선, 김창순, 안혜순, *영어: 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01.
[9] 김정원, 김지수, 한승대, "북한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변화 방향," 한국교육, 제42권, 제4호, pp.29-55, 2015.
[10] 정채관, 민호기, 박용효, 김소연, *북한이탈고등학생 영어학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탐색*, RRI 2014-6 연구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11] 박민제, "북한의 외국어교육: 러시아어에서 영어 위주로," 통일한국, 제112권, pp.102-105, 1993.
[12] 김남식, "북한의 교육제도 : 북한영어교육 실태," 北韓, 제282호, pp.178-187, 1995.
[13] 이소영, "북한의 영어교과서 연구에 대한 비판적 개관 :1994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제28호, pp.83-109, 2014.
[14] 유명근, *북한 중학교 전학년 영어교과서 지문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08.
[15] 정소영, *북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 북한대학원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0.
[16] 이나리, *북한 영어교과서 분석 : 고등중학교 3·4·5학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1.
[17] 임지영, *북한 고등중학교 고학년 영어교과서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1.
[18] 배제이, *북한 영어교육 연구 : 2000년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2011.
[19] 임중관, 신룡근, 박광원, *영어: 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1996.
[20] 임중관, 량영준, 리수성, *영어: 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1994.
[21] 저자 미상, *영어: 고등중학교 6*, 교육도서출판사, 1995.
[22] 임중관, 리수성, 량영준, *영어: 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2002.
[23] 신룡근, *영어: 중학교 5*, 외국문도서출판사, 2008.
[24] 김정렬, 이동주, 전희철, *코퍼스언어학과 영어교육*, 한국문화사, 2012.
[25] Y. Cameron, *Teaching Languages to Young Learn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26] M. McCarthy, *Vocabula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27] 유시은, 배형준, 조명숙, 김경희, 최영실, *탈북대학생 중도탈락 원인 및 대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저 자 소 개

김 지 영(Jiyoung Kim) 준회원

- 2004년 2월 :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학사)
- 2014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전문교육원 수료
- 2012년 9월 : 인천청일초등학교 교사
- 2015년 3월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초등영어전공 석사과정 파견

<관심분야> : 영어 교과서, 어휘 교육, 코퍼스 분석

이 제 영(Je-Young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교육학사)
- 2004년 9월 :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전공(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전공(교육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영어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 MALL, 코퍼스언어학, 연구통합

김 정 렬(Jeong-ryeol Kim) 정회원

- 1996년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2012년 ~ 현재 : 한국영어다독학회 회장
- 2011년 ~ 2012년 : (전) 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
- 2013년 ~ 2014년 : (전) 외국어교육학회 회장
- 2012년 ~ 현재 : Extensive Reading Foundation 이사
- 2014년 ~ 현재 : Reading in Foreign Languages 저널 편집이사
- 2015년 ~ 현재 :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

<관심분야> : 컴퓨터활용 영어교육, 초등영어교육, 영어교수법